

광주 시내버스 안 멈춘다...천천히 간다

노조 21일부터 준법투쟁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정한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은 16일 오전 지방장 회의를 열고 오는 21일부터 준법투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준법투쟁은 법규를 규정대로 지키면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노동 쟁의다. 안전 운전을 이유로 서행 운전이나 지정속도 운행, 승강장 주·정차 준수 준수 등의 준법투쟁이 개시되면 배차 간격 지연, 일일 총 운행횟수 감소 등이 초래된다.

노조는 시민 불편을 감안해 일단 전면파업은 유보했지만 지난 11일 협상 이후 광주시와 사측이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최소한의 쟁의 행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제수 노조위원장은 “준법투쟁을 하며 사측과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며 “특히, 준공영제 시행 초기 퇴직금 중간정산 등 기사들의 희생을 요구하며 임금인상을 약속했던 광주시가 계속 협상에 나서는다면 부분파업으로 수위를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협상 폭 조율이 실패함에 따라 지난 14~15일 이틀간 조합원 1269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찬성 72.4%(투표인원 1010명)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시급 인상과 유급휴가 1일 추가 등 통상 시급(時給) 기준 3.88% 인상안을

최종 제시했으나 사측은 유급휴가일 지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며 3.67% 인상을 최종 제시했다.

광주시는 노사 양측에 성실한 교섭 참여와 타협을 요구하는 한편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광주시와 광주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파업이 시작될 경우 평일 기준 98개 노선에 991대를 운영 중인 시내버스의 수송률을 71%(89개 노선, 728대)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파업 미참여 운전원에게 운영을 독려하고,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마을버스 증회 운행과 지하철 10% 증편 운행(일일 24회), 택시부제 해제도 함께 할 방침이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여주시 덕충동에 자리 잡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난 6월 문을 연지 3개월 만에 경영컨설팅과 핵심기술개발 지원 등의 역할을 소화해 내며 연착륙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창조센터 지역경제 '효자'로

지난 15일 오후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1층에서 상담을 마친 여주시정보화농업인연구회 사무국장 배광호(43) 씨는 만족한 듯 웃으며 자리를 뒀다. 돌산해풍농원 대표도 맡고 있는 그는 인근 40~50대 4명과 함께 해풍속, 울금, 방풍 등 여수 특산물로 비누를 만들고 있다. 4~5년 전부터 농산물 가공에 관심을 가진 이들은 비누만이 아니라 가공식품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 이날 센터에서 경영컨설팅을 받고 돌아갔다.

센터 2층에서는 에스엠소프트웨어(주) 김성훈 기술팀장이 스마트연계 자동화 시스템의 핵심장비인 컨트롤러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이 기술이 현재 육성, 국내·해외 농수산식품 판로 개척 가치를 제고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조만간 시제품이 개발되면 오는 11월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검증을 마친 전일연은 GS유통망을 통해 전국에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 6월 문을 연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남창조센터)가 개소 3개월 만에 '경영컨설팅', '핵심기술개발 지원', '유통망 제공' 등의 역할을 소화하며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농수산벤처산업 육성, 웰빙관광지 조성, 친환경바이오화학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남창조센터가 그에 따른 인력, 자금, 지원 시스템 등 체계를 갖추면서 센터를 찾는 지역 내 농어가, 기업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16일 전남창조센터에 따르면 최근 120억원 규모의 펀드가 투자되고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 및 전남도·전남도 출연기관 직원 7명, GS칼텍스·GS홈쇼핑 등 계열사 전문가 멘토 7명 등의 인원 구성을 모두 마쳤다.

센터 내 보육률에도 이미 9개 기업이 입주했다. 5년간 친환경농수산물(920억원), 창조경제혁신센터(150억

경영컨설팅·유통망 제공 등 인력·자금·지원 시스템 갖춰 농어가·기업 등 방문 증가

'전남창조경제협의회' 등도, 지원체계 구축 서둘러

특히 전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 우위인 농수산과 관련 맞춤형 창업, 아이디어사업화, 마케팅 및 글로벌 진출, 금융 등을 지원하기로 해 농수산물의 가공·유통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농어민 소득 향상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지원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14일 전남테크노파크 등 지역 8개 유관기관 관계자와 워크숍을 개최한데 이어 조만간 창조경제 민관협력과제 발굴·추진을 위한 '전남창조경제협의회'도 출범시킬 방침이다.

정영준(63) 센터장은 “전남이 가진 기존 자원과 잠재력에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펀드, 대기업의 시스템을 결합시키는 것이 센터가 할 일”이라며 “지역 내 대학과 기관, 단체, 기업 등과 연계해 최대한 성과를 이룬 시간에 내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북측 의뢰 이산가족 200명 생사확인 착수

경찰 등 협조 얻어 내달 5일 통보

대한적십자사(한적)는 16일 북측이 의뢰한 이산가족 명단 200명의 생사확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한적은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명단과 북측의 생사확인 의뢰서 명단에 적힌 이름과 지역, 주소 등을 일일이 대조하면서 확인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에는 6만 6292명의 이산가족이 등록돼 있다.

한적은 북측 가족이 찾으려는 남측 가족의 현 거주지와 소재 파악이 어려우면 정부 행정 전산망을 이용해 남측 가족을

찾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에도 명단을 통보하는 등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한적은 북측 의뢰서에 적힌 사람들의 생사 확인을 한 뒤 다음 달 5일 그 결과를 통보한다. 또 남측 이산가족 250명의 북측 가족 생사 확인을 의뢰한 결과를 북측으로부터 받는다.

한적은 상봉 의사와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한 뒤 다음 달 8일 최종 상봉 대상자 100명의 명단을 교환하기로 했다. 최종 상봉 대상자는 남북이 각각 100명이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10월 20~26일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올해 가장 크게 뜨는 한가위 보름달

한국천문연구원(KASI·원장 한인우)은 올해 한가위 보름달이 27일 오후 5시 50분(서울기준)에 뜨고 올해 뜨는 보름달 중에서 가장 크게 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천문원은 이번 한가위 보름달은 완전히 둥글어지지 않은 채로 떠오른 뒤 점점 차올라 추석 다음날 달이 진 다음인 28일 오전 11시 50분 완전히 둥근 모습이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올해 가장 둥근 추석 보름달은 달이 지는 시각인 28일 오전 6시 11분 직전 서쪽 지평선 위에서 볼 수 있다.

또 이번 한가위 보름달은 올해 뜨는 달 중에서 가장 크게 보인다.

이날 보름달은 올해 가장 작은 3월 6일 보름달보다 약 14% 크게 보인다.

달의 크기가 변하는 것은 달이 지구 주위를 타원궤도로 공전하면서 달~지구 거리가 변하기 때문이다.

한가위 보름달이 남중했을 때 눈에 보이는 달의 반지름(시반경)은 16'44.16"이며, 이날 달-지구 거리는 35만6882km로 달~지구 평균거리(약 38만km)보다 약 2만3000km 가깝다.

/연합뉴스

육회 'Six Times'·곰탕 'Bear Thang'

한식 영터리 외래어 표기 '손 놓은 정부'

정부가 한식 메뉴의 영터리 외래어 표기에 대해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지난 15일 나주 한궁농어촌공사에서 열린 한식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 한식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식메뉴 표준 외국어 표기법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고 실용성을 얹게 저며 양념에 날로 무친 육회를 'Six Times'로 표기한 식단이 있다”며 “'여섯 번'이라는 의미는 음식 육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뜻이 된다”고 언급했다.

곰탕을 'Bear Thang', 방어구이를 'Fried Defence', 육회비빔밥은 'Six Membership Fees Pip Rice'로 표기하

사해도 있었다.

그는 “한식재단이 2010년부터 '한국 메뉴 외국어 표기법 표준안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2년 한식메뉴 표준표기법 책자를 발간했다”며 “지난해에는 전문 번역가와 언어학자 등이 정한 표준 번역안을 국립국어원에서 공표했으나 정작 일선 음식점에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관련 부처와 공조해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국내외의 한식당들을 상대로 외국어 표기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통일된 한식 메뉴 외국어 표기법을 구축,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기자 golee@kwangju.co.kr

ICT/SW 전문인력양성 전액무료교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과정 모집

교육일정 : 2015년 10월 5일(월) ~ 12월 29일(화)

- ▶ 교육과정 : 차세대 ICT 시스템 개발자 양성과정
- ▶ 교육기간 : 2015.10.5.~12.29 (3개월, 480시간, 09:00~18:00)
- ▶ 교육비 : 전액무료 및 수당 지급
- ▶ 제출서류 : 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 www.ictkorea.or.kr) 팩스(062-655-2115), 이메일(ictkorea@ictkorea.or.kr)
- ▶ 접수마감 : 2015. 9. 30(수)
- ▶ 지원자격 (20명 정원)
 - 고등학교 / 전문대 / 4년제 대학 졸업자
 - 실업자 / 미취업자 / 취업준비생
 - 기술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개발자 (* 위 자격중 한가지라도 해당하면 지원 가능)
- ▶ 특전
 - 교육기간중 약 90만원 수당과 식대지급 (출석률, 출석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됨)
 - 수업료제 5원 무료제공
 - 출석률 80% 이상 수료증 발급
 - 출석률 95% 이상 모범생 수여
 - 수료생 취업연계 지원(종합의원사 및 협약기업 약 150개사)
- ▶ 교육내용
 - 현재 IT에서 가장 각광받는 java Technology의 기초부터 고급기술까지 학습
 - 소프트웨어 기능에 관한 시스템 설계부터 구현까지 완성하며, DBMS 설치 및 데이터의 관리 기술을 학습하여 프로젝트를 통해 현업에 필요로 하는 엔지니어 양성

구분	교육 내용	1일시간	누적시간
1~2주차	Core Java Programming	8	80
3주차	Database Programming	8	120
4주차	Tomcat7 기반의 ServletProgramming	8	160
5주차	Spring Framework 기본	8	200
6주차	Spring Framework 활용 (Maven, Git, JUnit, RestFull)	8	240
7~8주차	리눅스/유닉스 administrator	8	320
9주차	서블릿 코딩 in java	8	360
10~12주차	Final Project	8	480

재직자 직무향상 과정 모집

교육일정 : 2015년 10월 12일(월) ~ 11월 27일(금)

순번	훈련과정명	훈련시간	훈련기간	주야 구분	비고
1	SQL 튜닝 (DB교육)	5일, 20H	2015.10.13 ~10.16	야간	고급과정
2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공공사업관리)	5일, 20H	2015.10.19 ~10.23	야간	고급과정
3	서블릿코딩 (보안교육)	5일, 20H	2015.11.09 ~11.13	야간	고급과정
4	Unix/Linux Administrator (시스템운영)	5일, 20H	2015.11.16 ~11.20	야간	고급과정
5	프로젝트 관리의 핵심 스킬 (사업/물류관리)	5일, 20H	2015.11.23 ~11.27	야간	고급과정

※ 재직자 교육시간 (18:30~22:30) 교육비 무료, 교재, 간식 제공, 주차가능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SW현장전문인력) 창립총회 개최

개최일 : 2015년 9월 23일(수) 11:00~15:00

- ▶ 행사주관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 행사주최 : 한국ICT융합협동조합
- ▶ 행사장소 :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 ▶ 참석대상 : ICT/SW인력양성 및 수급관련 중소기업 및 한국ICT융합협동조합 회원사, 광주통합전선센터, 광주전남혁신도시 ICT/SW관계인사, 대학 등

※ 고급 부패 점심식사 및 고급 기념품(선착순 100명)을 제공

문의 **KBIZ 한국ICT융합협동조합** 062-655-2255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원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축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인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이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